

제4차 한중일 물류교류회 盛了



제4차 한중일 물류교류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시 상해 에버브라이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물류교류회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물류기업 관계자들과 물류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중국의 제조업-물류기술 및 응용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물류협회,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중국기계공사학회, 일본물류시스템협회, 홍콩물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물류기술 및 설비업체, 3PL 서비스업체 CEO가 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날 개회식에서 류지양 중국물류구매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매년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제조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물류기업의 성장률 역시 30%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물류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론 한국물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위한 몇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먼저 "화주기업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는 물류혁신을 위한 물류전문인력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자가 단독 물류체계를 지양하고 물류 전문업자에 위탁하거나 물류 공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Hardware적인 물류설비업체나 Software적인 물류Solution들은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컨설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면서 개별 화주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설비와 solution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일 물류교류회에는 한국에서 한국HP 김지연 차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피윤섭 연구관, 용마로지스 김인호 사장, 로테코 배기주 사장, 한국파렛트폴(KPP) 전영덕 전무,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김우현 주사가 세션 발표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연 차장은 유비쿼터스시대 한국공공분야에서의 RFID/USN 수요확산 계획을, 피윤섭 연구관은 우리나라 물류표준화 정책으로, 김우현 주사는 우리 정부의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을 소개했다. 또 김인호 사장은 3자 물류업체의 역할을, 배기주 사장은 로테코 물류설비기술과 응용사례를, 전영덕 상무는 공동물류를 실현한 파렛트폴 시스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한편 한중일 물류교류회 참가자들은 제10회 중국 국제물류운반 및 물류기술전시회(Material Handling China 2005)를 참관과 중국 전매공사 물류전담사로 담배, 주류 전문 물류센터인 상해해런물류중심과 철도물류를 중심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성집단, 228만평 규모로 조성될 국제물류설비단지(Shanghai Seashore Int'l Logistics Equipment Park)를 견학했다. **물류**